

굿바이! 빅초이



타이거즈 'V10' 주역 최희섭·박기남 은퇴

최, 5월 28일 한화전서 허리 통증으로 시즌 아웃
“김 감독님 덕분에 한번 더 뛰어 후회없다”
박기남 “KIA 떠날 수 없어 프런트 변신”

2009년 'V10'이 멤버들이 추억을 남기고 떠난다. 은퇴 의사를 밝혔던 '빅초이' 최희섭이 지난 30일 발표된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은퇴가 공식화됐다. '빛나는 조연' 박기남도 은퇴 수순을 밟으면서 보류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최희섭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진로를 고민할 생각이다. 박기남은 프런트로 변신해 또 다른 야구에 도전한다.

우리나라 타자 최초의 백리거로 명성을 날렸던 최희섭은 야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다. 5월 28일 한화와의 경기 마지막이었다. 배영수의 공을 피하던 그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악화되면서 재활군이 됐다. 올 시즌 극적으로 복귀해 KIA 타선에 힘을 실어주었던 그는 그라운드에 돌아오기 위해 이를 악물었지만 끝내 돌아오지는 못했다. 한화전이 최희섭 야구 인생의 마지막 경기로 남게 됐다.

최희섭은 “쉬고 있다. (은퇴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라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상에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감독님 잘 만나서 한 번 더 뛰고 은퇴를 하게 됐다. 그게 중요하다. 안 뛰고 갔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기회를 더 주었던 김기태 감독은 남은 야구 인생의 나침반이기도 하다. 최희섭은 “감독님께서 제 1의 인생은 야구선수였고 지금은 축구로 따지면 하프타임 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전반기가 끝나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잘 쉬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셨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야구인이라 어차피 야구 쪽으로 올 것이다. 야구 공부도 더하고 싶고, 여러 가지들 준비하고 있다”며 “KIA라는 이름으로 또 야구선수 최희섭으로 처음 우승을 했다. 조 감독님이 편안하게 해주셨고 (김)상현이 키를 쥐면서 잘해줬다. 무엇보다 좋은 투수들이 있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은퇴를 결정하는 데 고민이 덜했던 것 같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훌가분하게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기남도 오랜 고민을 뒤로하고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박기남은 스카우트팀이나 전력분석팀에서 야구 인생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기남은 “시원섭섭하면서도 훌가분하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1~2년 더 야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KIA를 떠나기 싫었다.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물러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팀이 리빌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과 미래를 생각해서 새로운 삶을 결정했다”며 “감독님이나 프런트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감독님에게 감사 드린다.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제 2의 인생도 있는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떠나는 그에게도 역시 2009년 우승의 기억은 가장 특별하다. 박기남은 “이곳에 와서 우승을 해봤다. 우승에 보탬이 되려고 했었다.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맡은 임무,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던 선수로 기억해주시면 좋겠다”며 “야구 선수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다른 길을 보고 색다르게 그라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많이 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당장 컴퓨터 학원부터 다녀야겠다”고 웃었다.

“V 10”의 추억을 뒤로하고 최희섭과 박기남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기남

박병호 '황금장갑'으로 설욕할까

KBO, 골든글러브 후보 발표...KIA 윤석민·양현종·브렛 필 포함

MVP를 놓고 격돌했던 테이즈(NC)와 박병호(넥센)가 황금장갑을 놓고 2라운드 대결에 나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5시즌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해 수상하는 '2015 타이거뱅크 KBO 골든 글러브' 후보 44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후보는 올 시즌 출장 경기수와 투구, 공격, 수비 성적 등을 반영해 각 포지션별 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며, 정규시즌 투수·타자 부문별 1위 선수는 자동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IA에서는 윤석민·양현종(이상 투수), 브렛 필(1루수) 등 세 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투수 부문은 평균자책점 3.50 이하이면서, 15승 이상 또는 30세이브 이상 거둔 선수로 KIA 윤석민·양현종과 함께 차우찬·안지민·임창용(이상 삼성), 에릭 해커(NC) 등 6명이 후보가 됐다. 96경기 이상 출장, 타율이 0.300 이상인 투수 양의지, 삼성 이지영, 롯데 강민호는 포수 골든글러브 후보로 선정됐다. MVP를 놓고 겨뤘던 테이즈와 박병호는 1루수 자리에서 재격돌한다. 신인왕 구자욱(삼성)과 KIA 브렛 필까지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1루가 '핫코너'다.

2루수 부문에서는 두산 오재원, 삼성 나바로, NC 박민우, 한화 정근우, 롯데 정훈, kt 박경수까지 총 6명이 각축을 벌인다. 3루수는 두산 허경민과 삼성 박석민, 넥센 김민성, 롯데 황재균 그리고 kt 앤디 마르테까지 5명이 후보다. 두산 김재호와 삼성 김상수, 넥센 김하성, SK 김성현, LG 오지환은 유격수 황금장갑을 노린다.

3개의 골든글러브가 주어지는 외야수 부문에서는 김현수·민병헌(이상 두산), 박해민·최형우(이상 삼성), 나성범(NC), 이명기(SK), 이용규(한화), 손아섭·짐 아두치(이상 롯데), 박용택(LG), 이대형(kt) 그리고 FA 계약으로 kt 유니폼을 입게 된 유한준까지 총 12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 이승엽과 NC 이호준, 롯데 최준석 등 베테랑 타자 3명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경쟁한다.

골든글러브 투표는 오는 4일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들과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상자는 8일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NC 박석민 4년 96억	한화 정우람 4년 84억	롯데 손승락 4년 60억
------------------	------------------	------------------

앗 뜨거! FA 시장

FA(자유계약선수) 100억원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과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6 프로야구 FA 최대어로 꼽혔던 3루수 박석민(30)과 좌완 불펜 정우람(30)이 지난 30일 초대형 계약을 했다.

원 소속팀 삼성과 계약하지 않고 FA 시장에 나온 박석민은 4년 최대 96억원(계약금 56억원, 4년 연봉 30억원, 플러스 옵션 10억원)에 NC 유니폼을 입었다. 총액 기준으로 윤석민(KIA)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하며 기록한 9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우람은 원 소속구단 SK의 제의를 거절하고 한화하고 4년 84억원(계약금 36억원, 연봉 12억원)에 계약했다. 윤석민에 이은 역대 FA 투수 두 번째 초대형 계약이며, 불펜 투수로는 지난해 안지민이 삼성과 한 4년 65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또 다른 FA 대어로 꼽힌 마무리 손승락(33)은 4년 총 60억원(계약금 32억원, 연봉 7억원)에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KIA '될성부른 떡잎 잘 골랐네' 예비 신인 최원준 백인천상 수상

KIA의 '예비 신인' 최원준이 백인천상의 주인공이 됐다. 초대수상자인 황대인에 이어 2년 연속 KIA 신인 지명 선수가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됐다.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가 오는 4일 오후 1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 홀에서 '2015 KMI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를 열고 제 2회 백인천 'BIC 0.412'상을 시상한다. KIA 입단을 앞두고 있는 서울고 내야수 최원준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은회는 "BIC 0.412' 수상자는 OPS 1.000 이상, 60타수 이상, 4할 이상, 고교·대학야구선수 대상' 선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적 외에도 스카우트와 현장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전 가능성과 성실도, 인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최원준은 2015년 타격 전부분에서 최상위권(OPS 1.451, 66타수 31안타, 타율 0.407, 4홈런 등)의 기록을 작성하면서 KIA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최원준은 "상을 받고 아마 시절을 끝내게 되서 후련하고 기분이 좋다. 올 시즌 운이 좋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며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었고 프로에 대한 준비도 했다. 프로에 맞는 타격폼으로 잘 수정해서 잘 적응하도록 하겠다."



/김여울기자 wool@